

삶으로 주를 노래하다

시편 1편, 23편, 117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억됩니다.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양하게 노래한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인은 양적인 시간에서 질적인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영원을 삽니다. 순간을 말씀으로 채우면 영원을 맛봅니다. 복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1. 말씀으로 채웁니다 (시1:1~6)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악인)을 대조하여 그들 각각의 특징^(1~2절), 실상^(3~4절), 운명^(5~6절)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길, 자리 대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즐거이 묵상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 순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이 영원과 잇닿는 복을 누립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봅니다. 마르지 않는 시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길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되레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마12:45).

우리는 늘 기로에 섭니다.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에 사로잡힐 것인가 상황에 사로잡힐 것인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 같은 현실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결정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문 격인 1편에서 말씀을 채우고 묵상하는 삶을 강조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그를 만들고, 이끌고, 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베이스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못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 117:1)

을 묵상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두이길 바랍니다.

2. 말씀을 따릅니다 (시23:1~6)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씀에서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은유를 통해 여호와와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네를 그립니다. 창조주인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1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여호와이기에 가장 알맞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합니다^(2~3절). 그 길이 때론 죽음 같이 음침한 곳이라도 기꺼이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4절). 원수의 눈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넘치는 복을 노래합니다^(5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픈 강한 소원이 생깁니다^(6절).

가치가 위치를 결정합니다.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자기인정^(시119:105)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자기포기^(빌2:5-8)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기부인^(갈5:24)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자기선언^(마8:34)입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실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경이로움을 맛보기 바랍니다.

3. 삶으로 노래합니다 (시117:1~2)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따르면 영혼 깊은 곳에서 노래가 솟구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흥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까닭^(2절)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합니다. 노래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춤추게 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1절) 이것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린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말합니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못별의 삶입니다.